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Galaxy S22 Unpack Event (feat.나도 한번 사볼까?)

리서치센터 Tech팀
이종욱 수석연구위원
jwstar.lee@samsung.com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지만, 투자권유의 적합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라도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신뢰에 가치로 답하다

삼성증권



갤럭시S22 Unpack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료: 삼성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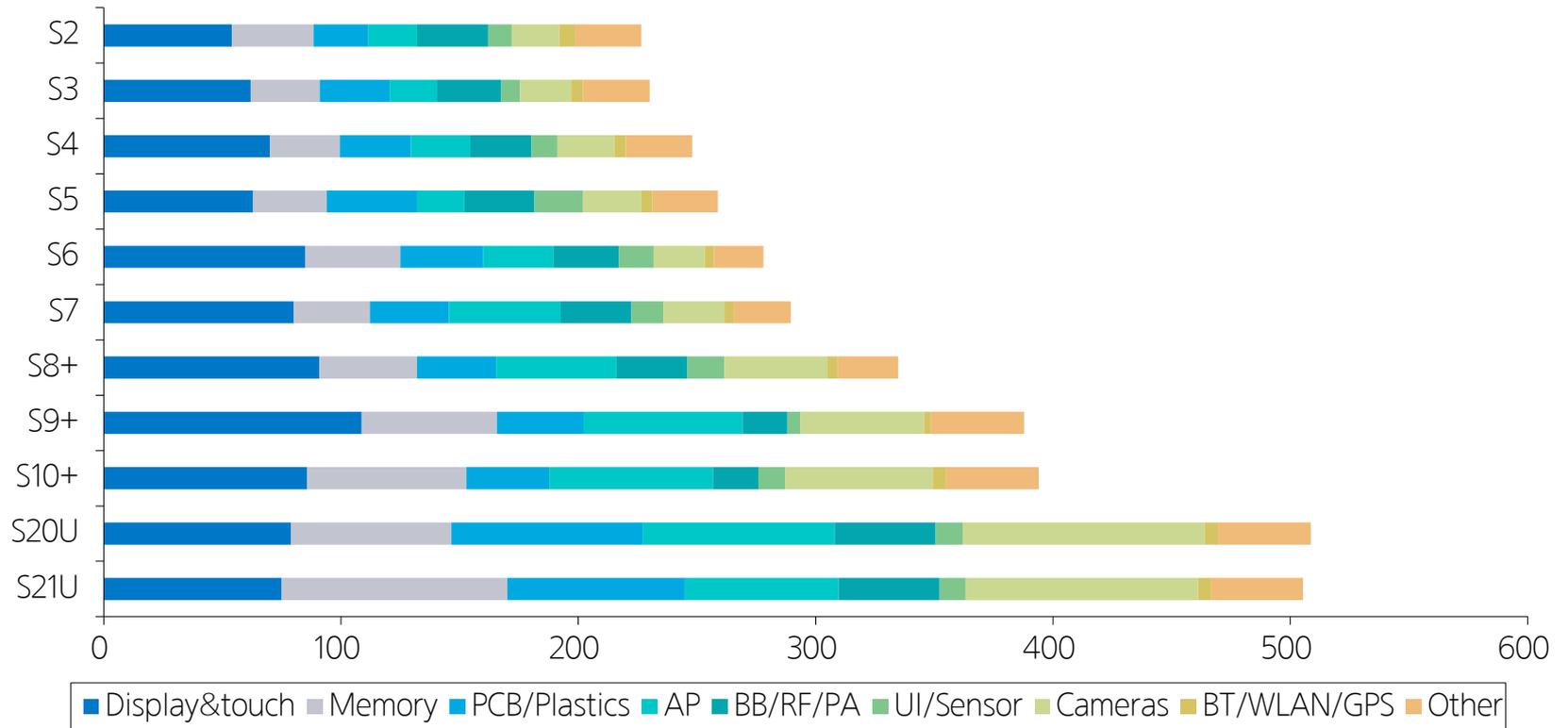
PART
01

재료비 언제까지 올라갈까



갤럭시 S시리즈 BoM cost

갤럭시 S시리즈 BoM cost



자료: 삼성증권 추정

디램/낸드: 디램은 여전히 12GB / 낸드는 1TB 부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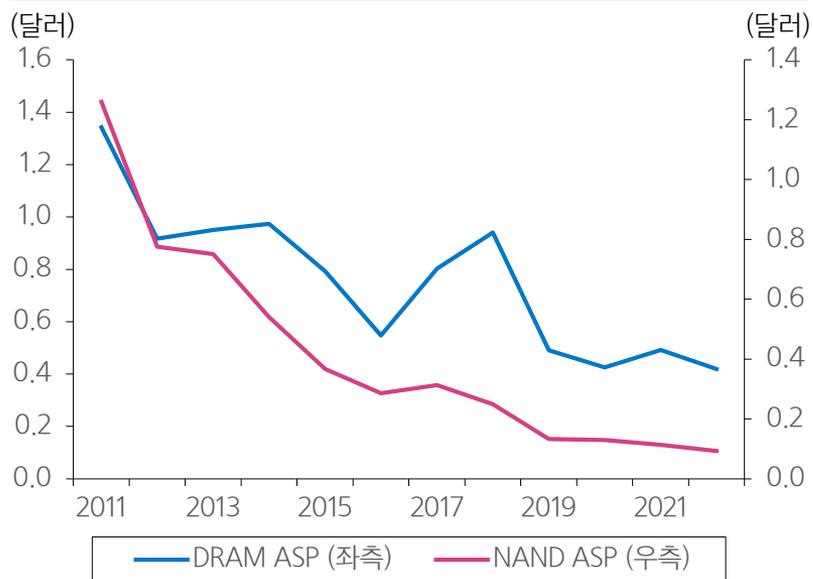
갤럭시 S시리즈의 디램/낸드 평균 탑재량 추이

	S9 (2018년)	S10 (2019년)	S20 (2020년)	S21 (2021년)	S22 (2022년)
디램	4GB 6GB	6GB 8GB 12GB	8GB 12GB 16GB	8GB 12GB 16GB	8GB 12GB
낸드	64GB 128GB 256GB	128GB 512GB 1024GB	128GB 256GB 512GB	128GB 256GB 512GB	128GB 256GB 512GB 1024GB

- 디램: 탑재량 증가 속도가 둔화. S22의 기본 디램 탑재량이 8GB로 증가했지만, 울트라 모델 내 16GB 디램 옵션이 제외 (갤럭시S22U).
- 낸드: 탑재량 증가 추이 지속. 1TB 옵션의 부활.

자료: 삼성전자, 삼성증권

연간 디램과 낸드 가격 추이



- 1Q22 디램 가격: 보수적인 시장의 시각 (최대 10-15% 하락) 대비 양호한 한자릿수 중후반%의 가격 하락을 전망
- 1Q22 낸드 가격: 중국 시안 락다운 사태, 키옥시아 공장 오염 등으로 우려 대비 가격은 양호할 것. 1분기 한자릿수 중반% 가격 하락을 예상.

자료: Omdia,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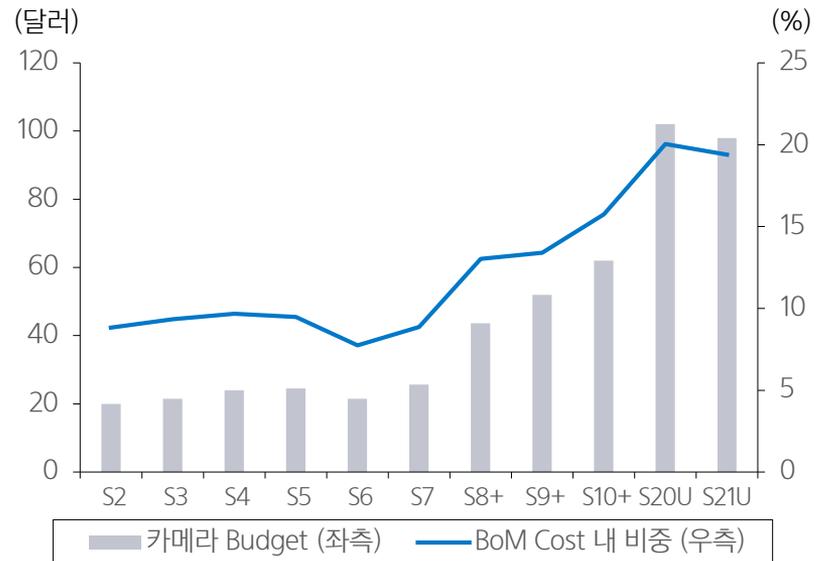
카메라 사양 변화: 약간의 변화, 카메라 부품 예상 소폭 하락 예상

카메라 스펙



자료: 삼성전자, 삼성증권

갤럭시 S시리즈의 카메라 Budg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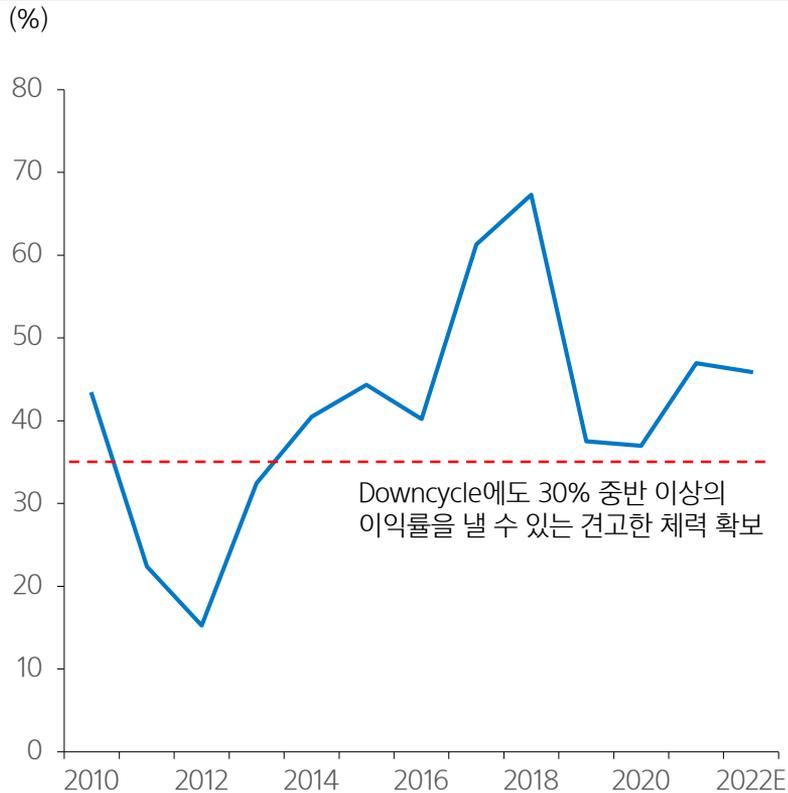


- 카메라 화소 수와 대당 탑재량 증가, 광학 줌 채용 등으로 갤럭시 S시리즈의 BoM Cost 내 카메라의 비중은 증가 중.
- 카메라 스펙 업그레이드가 스마트폰 교체수요를 유발하는 주된 요인이기에 카메라 스펙 업그레이드에 투입하는 Budget이 증가 중.

자료: 삼성증권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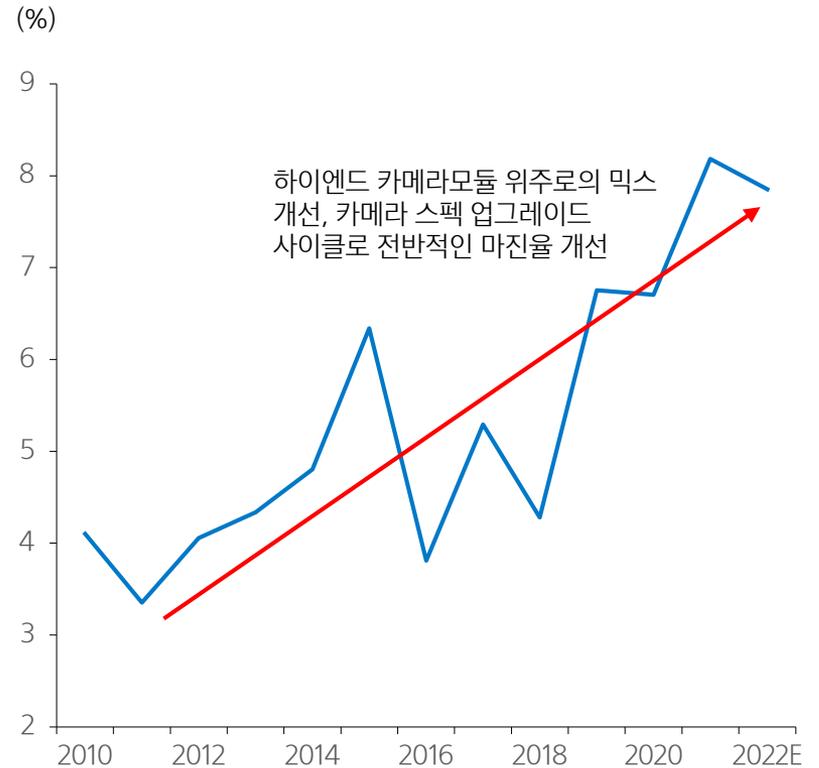
부품의 영업이익률: 세트와 부품, Bargaining power는 누구에게

삼성전자의 연간 디램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삼성증권 추정

LG이노텍의 연간 카메라모듈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삼성증권 추정

PART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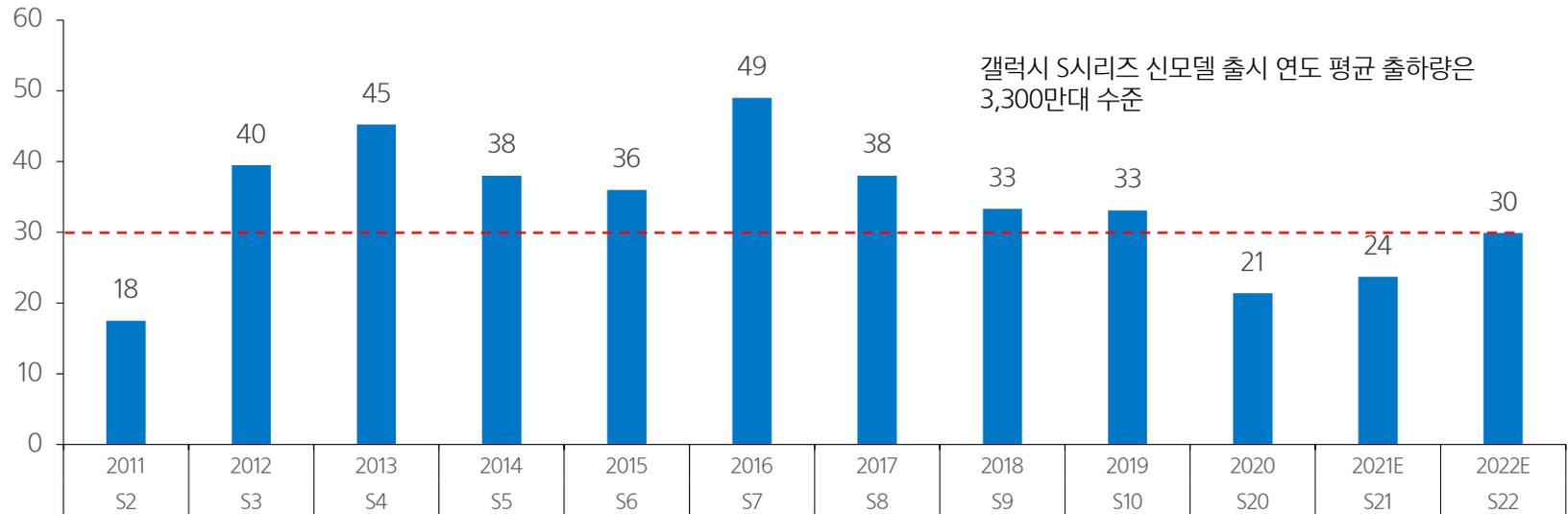
출하량 회복, 어떻게 이뤄질까



S시리즈의 출하량 3,000만대 도전!

갤럭시 S시리즈 출하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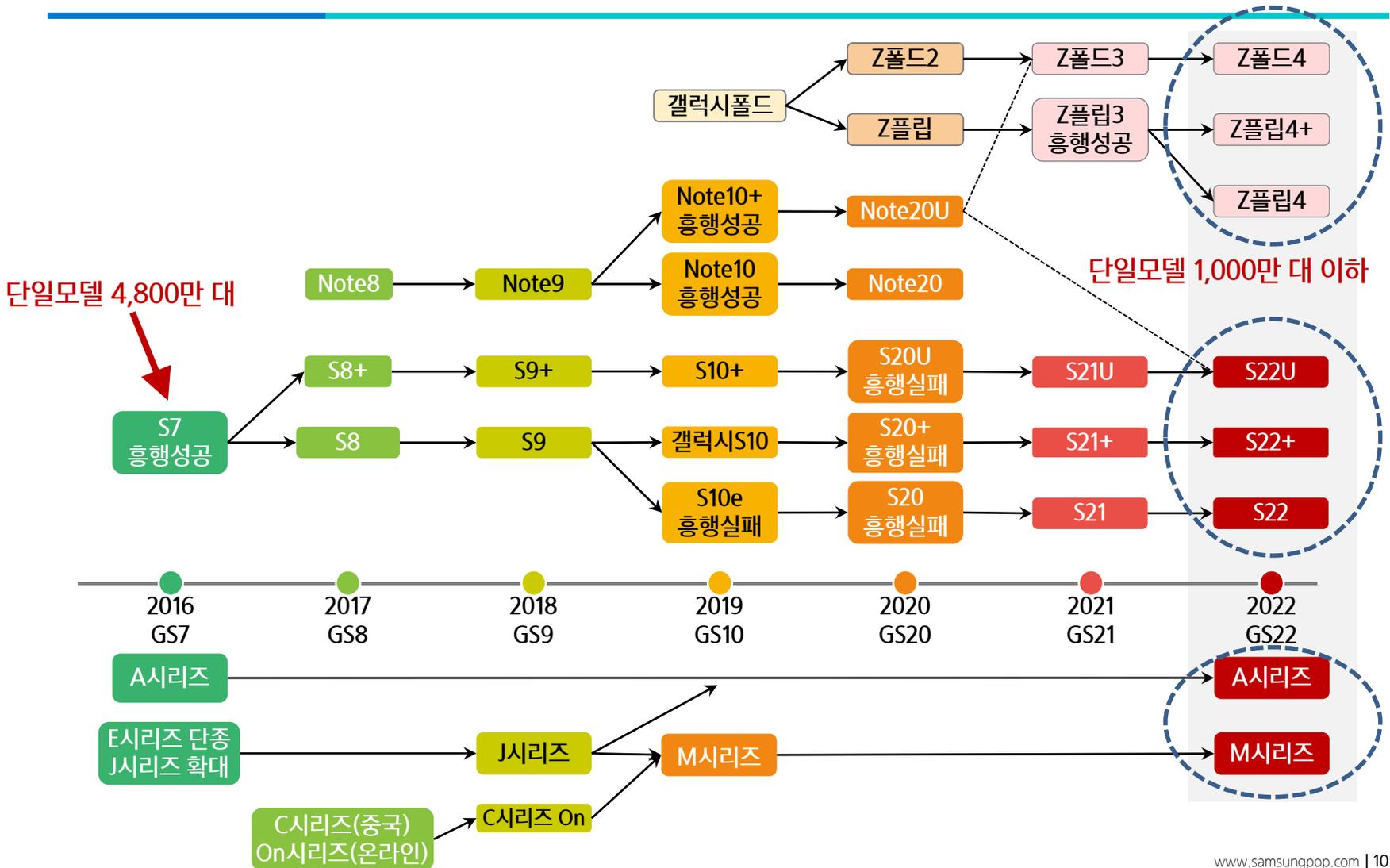
(백만대)



- 갤럭시 S22시리즈의 경우, 공격적인 판가 정책 (재료비 상승에도 가격을 동결)을 기반으로 출하량 확대에 나설 것으로 전망.
- S22 시리즈: S펜을 탑재한 갤럭시 S22 울트라 모델 위주로의 제품믹스 개선 기대. 기존 갤럭시 노트 시리즈의 수요층을 흡수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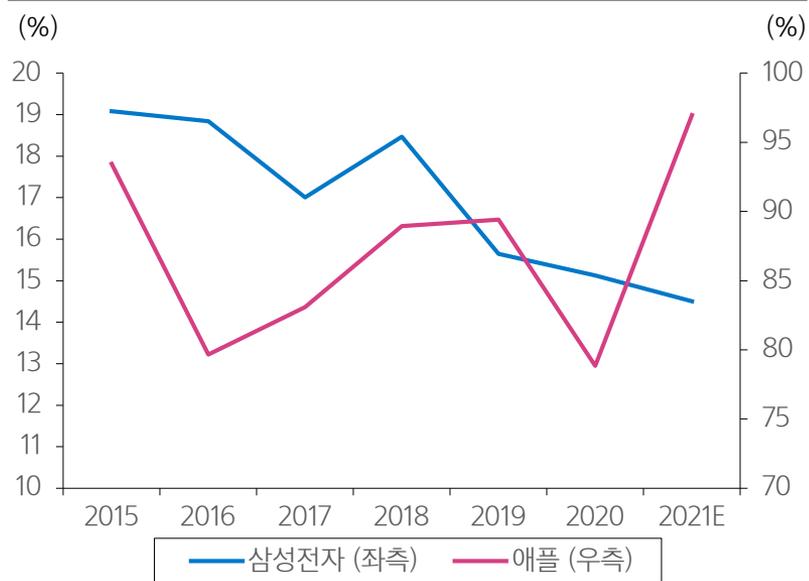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삼성전자 플랫폼 전략: 플래그십 3+3 체제 구축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엇갈린 운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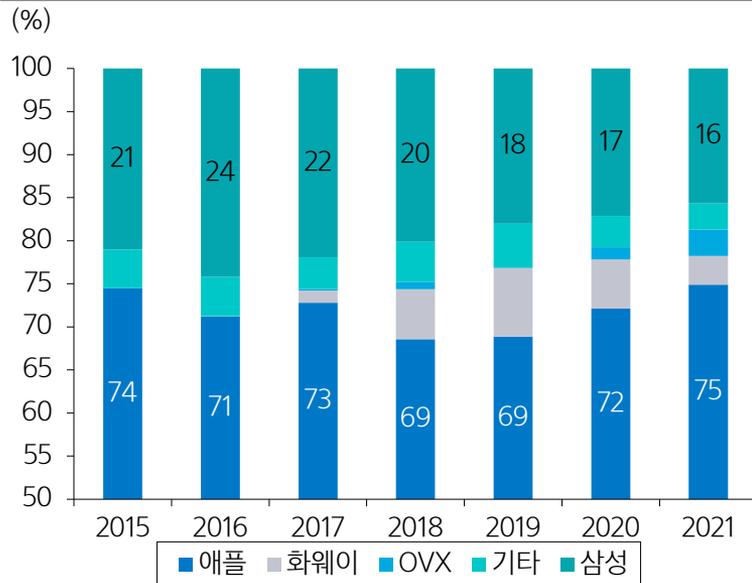
500달러 이상 스마트폰 판매 비중 추이



- 애플: 하이엔드 스마트폰 위주의 판매를 지속. 저가 모델 라인업은 중저가 시장 공략을 위해 출시하는 아이폰SE 시리즈 뿐 (399달러).
- 삼성전자: 중저가 시장과 하이엔드 시장을 동시에 공략. 다만, 하이엔드 시장 내 경쟁력 약화로 하이엔드 비중은 지속 하락 중.

자료: SA, 삼성증권

500달러 이상 스마트폰 점유율 추이 (애플/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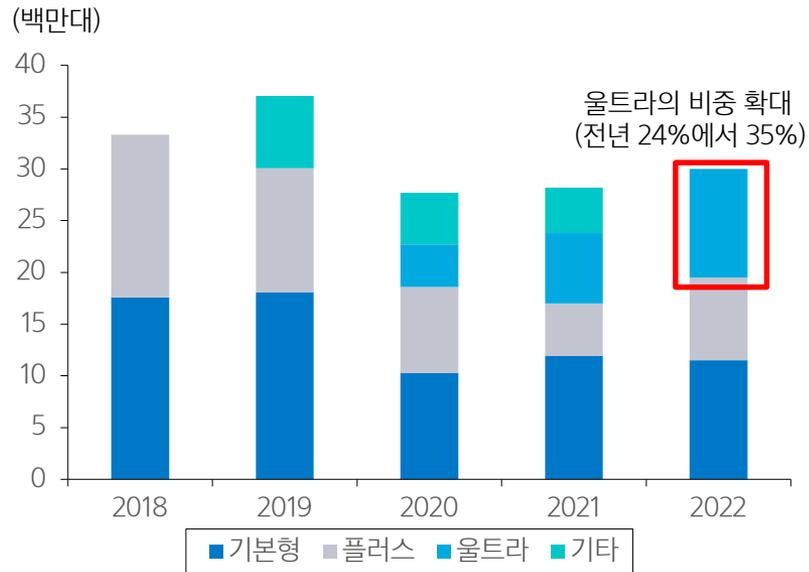


- 애플의 하이엔드 시장 내 지배력 강화: 500달러 이상 하이엔드 스마트폰 시장 내 애플의 점유율은 2018년 69%에서 2021년 75%로 증가
- 하이엔드 시장 내 삼성전자의 부진이 이어지는 양상

자료: SA, 삼성증권

플래그십 모델의 라인업 변화를 통해 판매의 반전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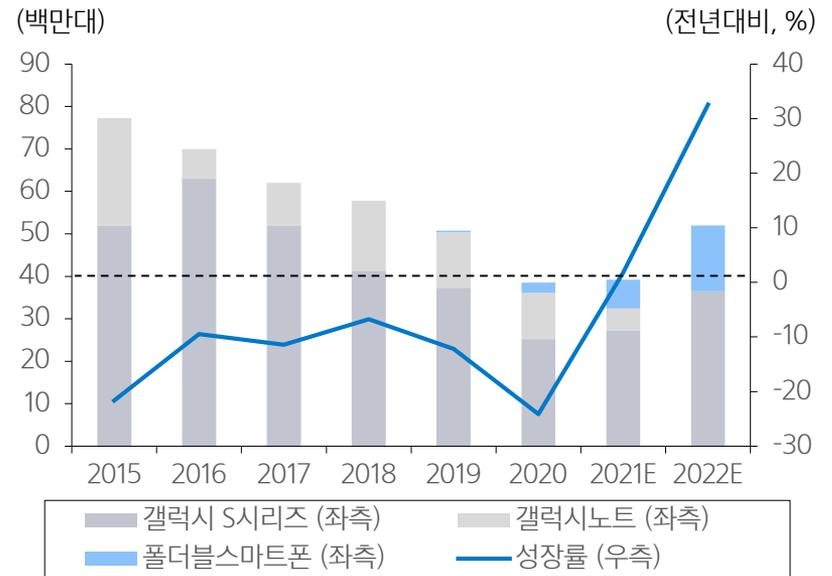
연간 갤럭시 S시리즈 모델별 출하량 비중



- 엔트리 레벨의 경우 사양 다운그레이드를 통해 가격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전략
- 울트라 모델 비중을 21년 32%에서 22년 35%로 확대

자료: SA, 삼성증권 추정

삼성전자의 연간 플래그십 스마트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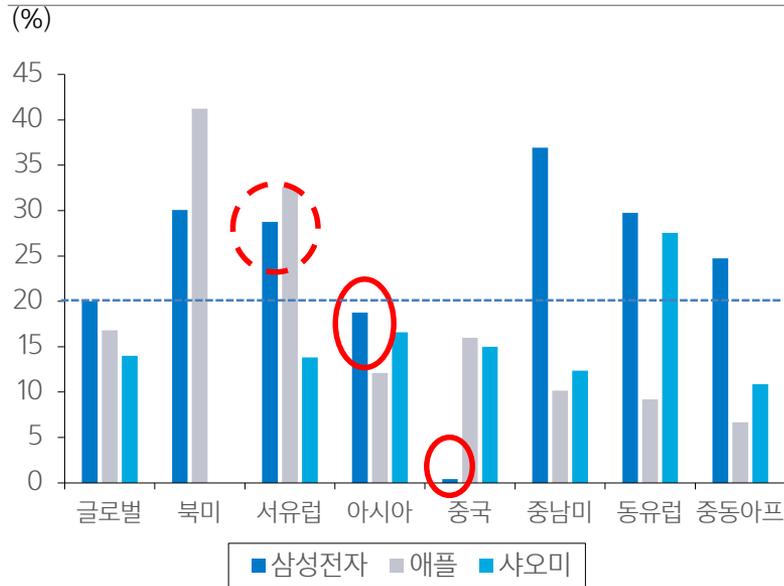


- 연간 1,000만대의 수요를 창출하던 갤럭시노트의 부재 등으로 하이엔드 스마트폰 시장 내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하락.
- 폴더블스마트폰의 출하량 확대를 기반으로 하이엔드 경쟁력 확대 기대

자료: SA, 삼성증권 추정

S시리즈, 어디에 팔아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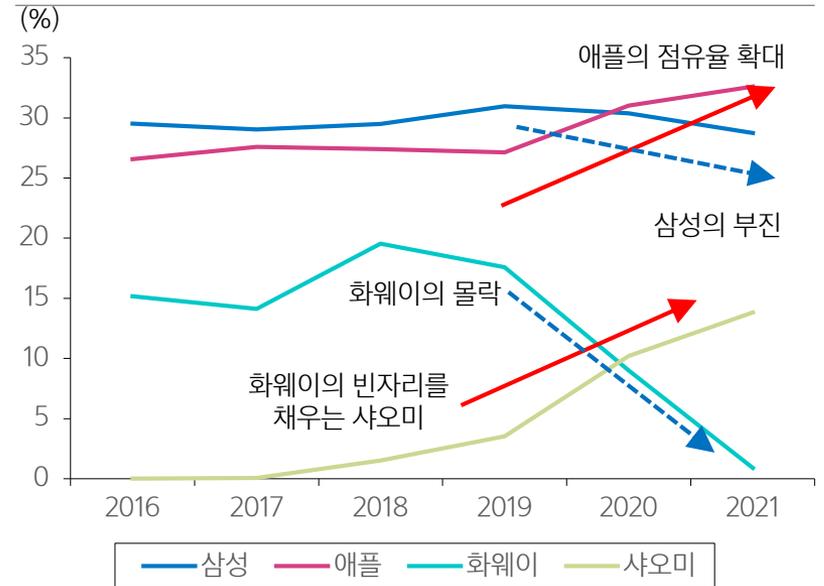
삼성전자의 지역별 스마트폰 점유율



- 2021년 삼성전자의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은 20%로 1위. 중남미, 아시아(중국 제외), 중남미, 동유럽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유지
- 다만, 갤럭시노트7 발화 사태 이후, 최대 시장인 중국시장에서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양상 (현재 1% 미만의 점유율).

자료: SA, 삼성증권

서유럽 스마트폰 점유율 추이



- 미중 무역분쟁 이후, 미국의 제재 여파로 서유럽 시장 내 점유율 15% 이상을 가져가던 화웨이가 몰락.
- 화웨이의 빈자리를 샤오미가 채우는 양상. 애플 역시 점유율을 확대 중.

자료: SA, 삼성증권

PART
03

문제는 가격. 반도체 가격 전가 실패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지속되는 가격 동결



갤럭시S22, 전 모델 '가격 동결'...25일 출시

발행일 : 2022.02.07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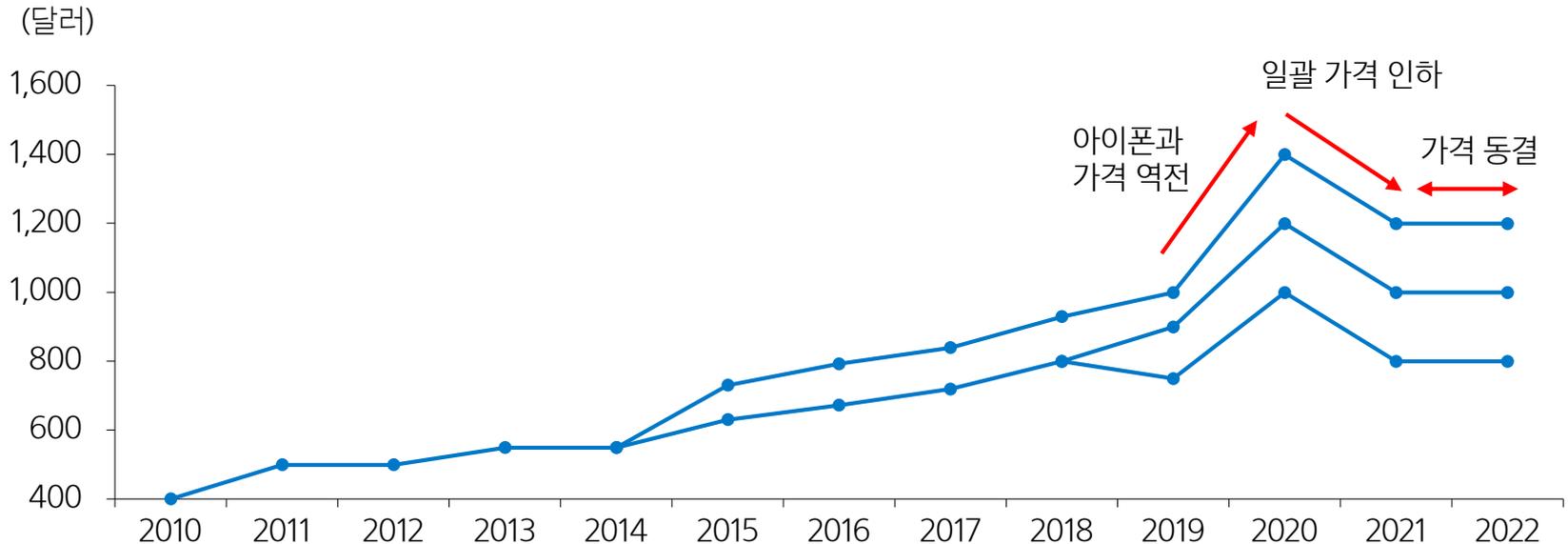


Chosun 갤럭시S21FE, 팬심 담아 성능 '업'가격 '그대로'

라스베이거스=이광영 기자 입력 2022.01.04 13:40

갤럭시 S22: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가격 동결을 결정

갤럭시 S시리즈 판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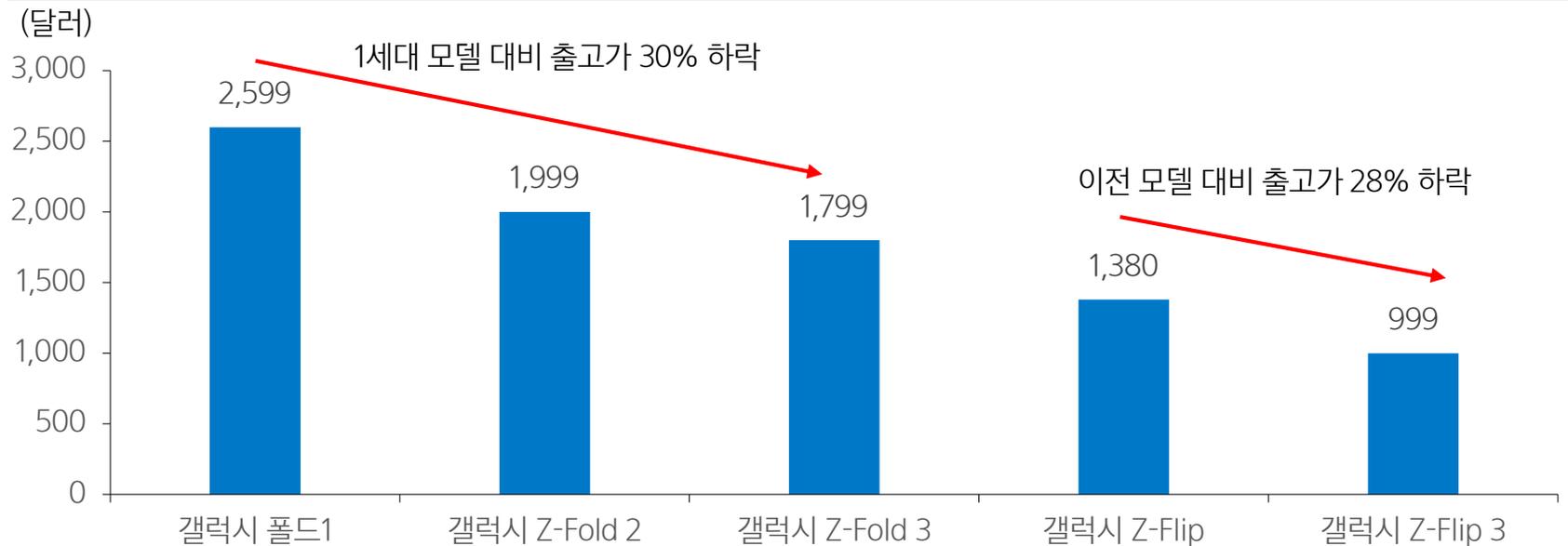


- 주요 부품 가격 인상과 스펙 업그레이드 등으로 인한 재료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갤럭시S22 시리즈의 판가를 동결.
- 공격적인 판가 정책을 기반으로 하이엔드 시장 내 경쟁력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적인 선택

자료: 삼성전자, 삼성증권

삼성전자 폴더블 시리즈: 대중성을 확보하라!

삼성전자 폴더블 스마트폰 시리즈 출고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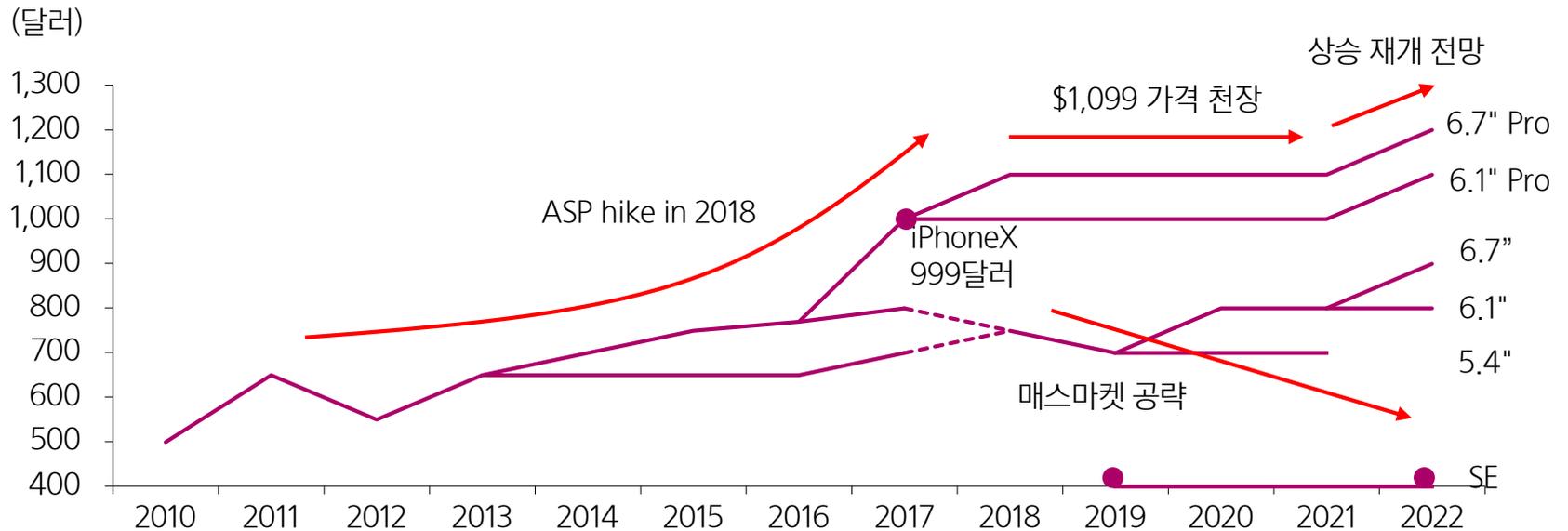


- 삼성전자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1)의 경우, 폼팩터 혁신에도 불구하고, 차별화된 콘텐츠 부재와 제한적인 공급량, 고가의 가격 (2,599달러, 출고가 기준)으로 흥행에는 크게 성공하지 못함.
- 폴드와 플립 모두 공격적으로 판가를 인하. 판가 인하를 통해 폴더블스마트폰의 대중화를 이끌겠다는 전략.

자료: 삼성전자, 삼성증권

아이폰의 가격 방향성은?

아이폰 판가 추이



- 애플은 올해 아이폰14 (2022년 플래그십 신모델, 가칭) 시리즈와 아이폰SE3 (저가형 모델)를 출시할 전망.
- 재료비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 속, 독보적인 브랜드 파워를 지닌 애플은 아이폰 플래그십 모델의 판가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존재. 아이폰SE3의 경우, 중저가 시장 공략을 위해 기존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애플, 아이폰SE의 가격을 인상시킬 수 있을까



Higher Apple iPhone 14 Pro and iPhone 14 Pro Max prices leak

By [Daniel Petrov](#)

Jan 11, 2022, 5:12 AM

Mac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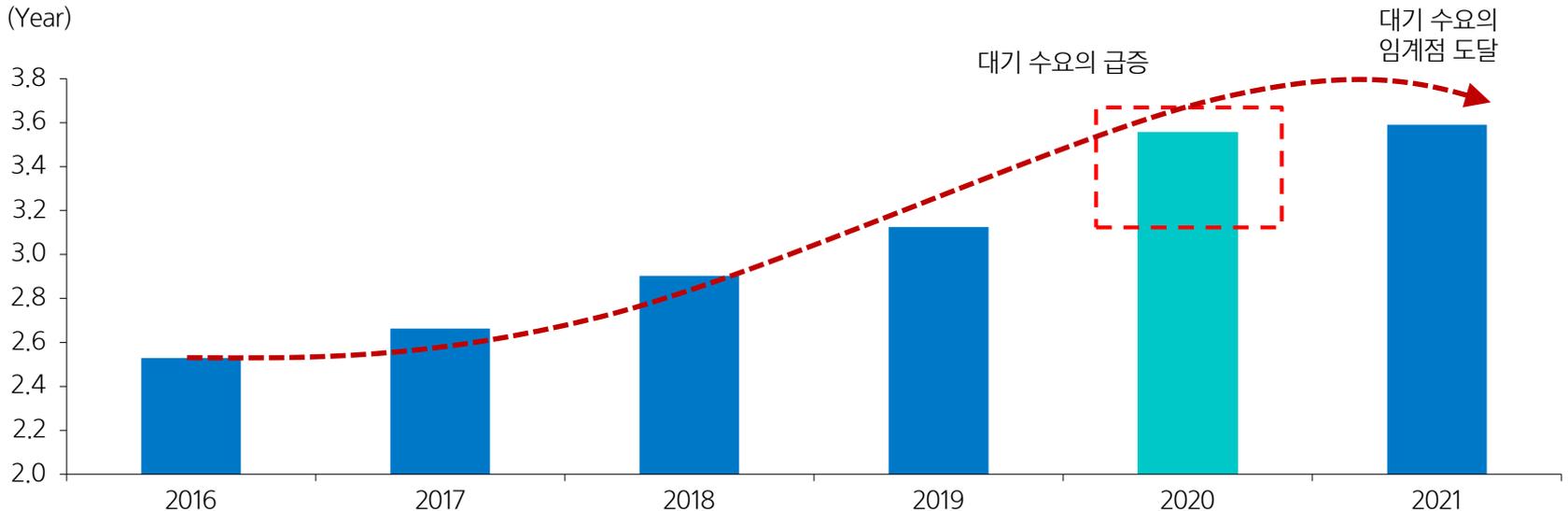
the inclusion of 5G and the associated licensing costs, it's quite possible that the iPhone SE gets a price hike to something like \$449 or \$499, but we don't expect it to cost more than that.

By [Jason Cross](#)

Staff Writer, Macworld | JAN 20, 2022 2:45 AM PST

스마트폰 교체주기: 대기 수요의 임계점에 도달

스마트폰 교체주기: 3.5년에서 정체 전망



- 평소 1-3개월의 증가 추세 이후 2020년 5개월 급격히 증가. 구매욕구 저하가 아닌 대기 수요로 보는 이유는 증가 속도 때문
- 부품 문제로 4년 이상으로 교체주기가 늘어날 가능성이 적은 상황

PART
04

성능: One UI의 연계성 어떻게 증명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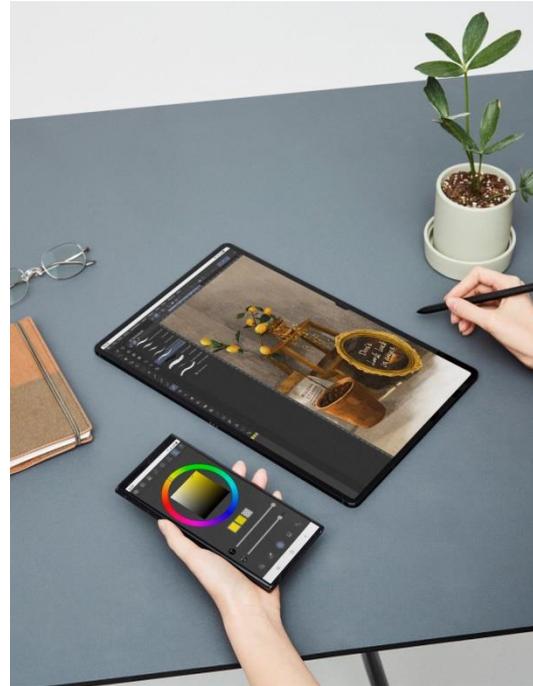


갤럭시S와 갤럭시 탭S의 만남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연계성, 멀티스크린과 Quick share의 편리함을 증명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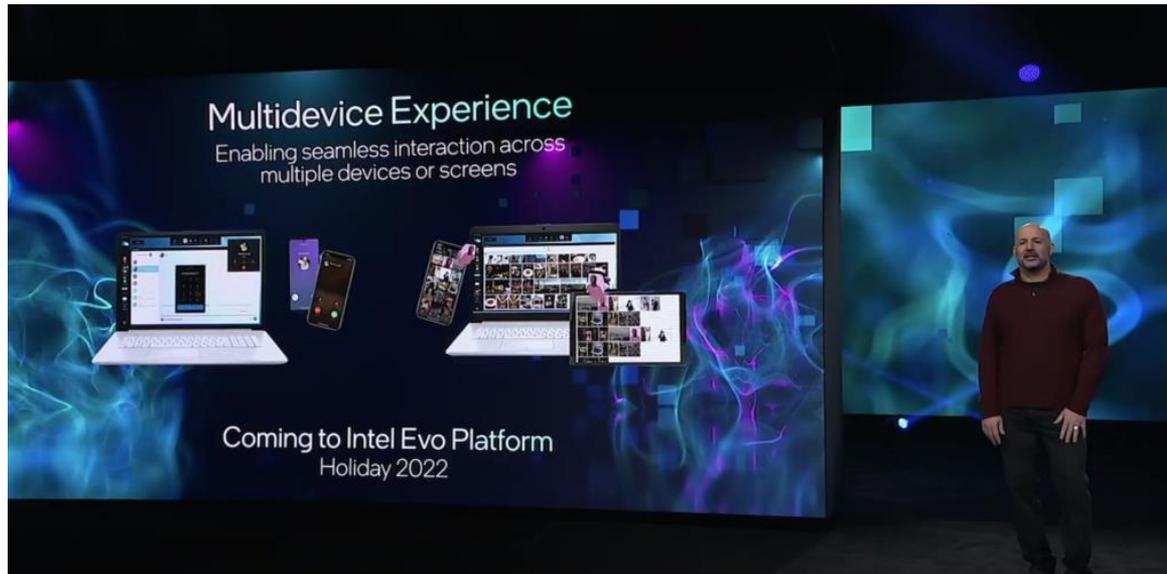
갤럭시 탭 S8 Ultra

함께하면 더 놀라운 갤럭시



CES의 이 장면. 인텔이 제시한 Multidevice experience

- 1 인텔의 Evo Platform에서 multi devices interaction 지원을 발표
- 2 2020년 12월 Screenovate를 1억 달러에 인수: 크로스 플랫폼 커뮤니케이션 기업
- 3 Computing 경험의 핵심을 노트북PC로 이동하려는 시도



Multi device를 지원하기 시작하는 애플과 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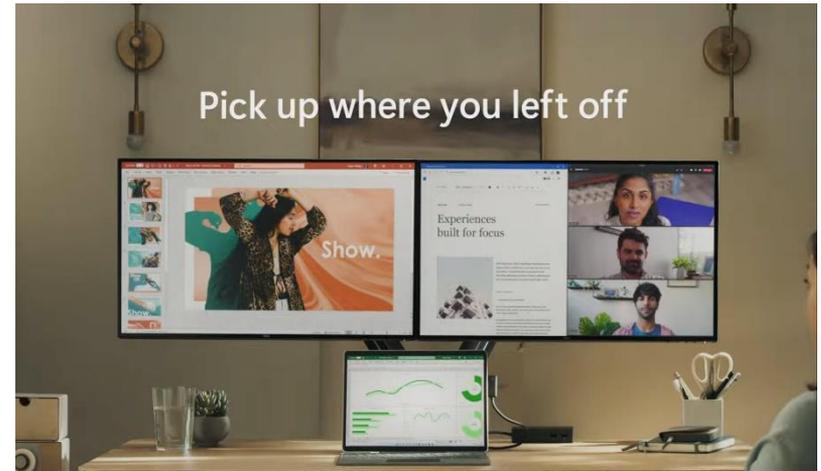
MacOS의 Universal Control (2021)



- 맥북과 아이패드를 마치 하나의 컴퓨터인 것처럼 동시에 연결하여 사용
- 맥북과 아이패드의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
- CPU 아키텍처와 운영 시스템을 통일

자료: 애플

Window11의 Multi-monitor support (2021)



- 모니터의 확장 시 확장된 바탕화면을 기억
- 2번째 모니터의 플러그앤플레이 자동 감지
- 모니터 제거 시 버벅거림 해소

자료: 마이크로소프트

삼성과 LG는 Screen extension과 UI 통일로 대응

삼성 갤럭시북과 태블릿 연계 (2022)



- 삼성 갤럭시북과 탭S7 간의 Second screen 기능
- One UI 플랫폼의 노트북 확장, 기기간 연계에 중점

자료: 삼성전자

LG그램 플러스뷰: 세컨 스크린 제공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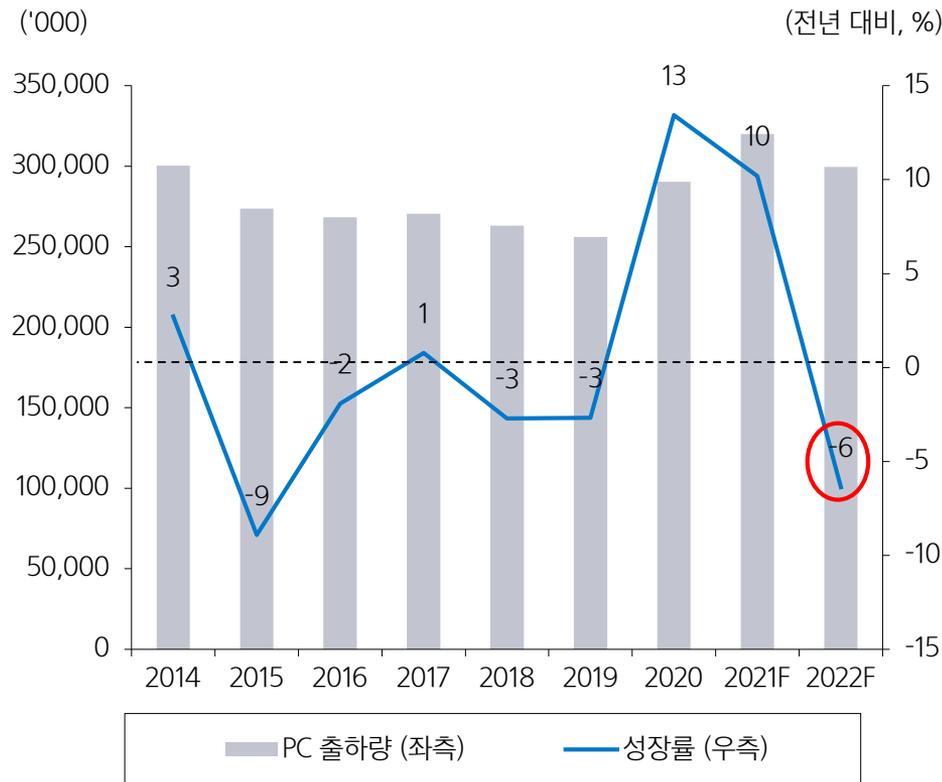


- LG 그램 15인치와 같은 사이즈와 해상도
- 마치 듀얼모니터처럼 노트북을 사용
- 기기간 연계성 보다는 화면 연장에 중점

자료: LG전자

PC 출하량: 팬데믹으로 성장한 뒤 Multi device의 하나로 정착

연간 PC 출하량 전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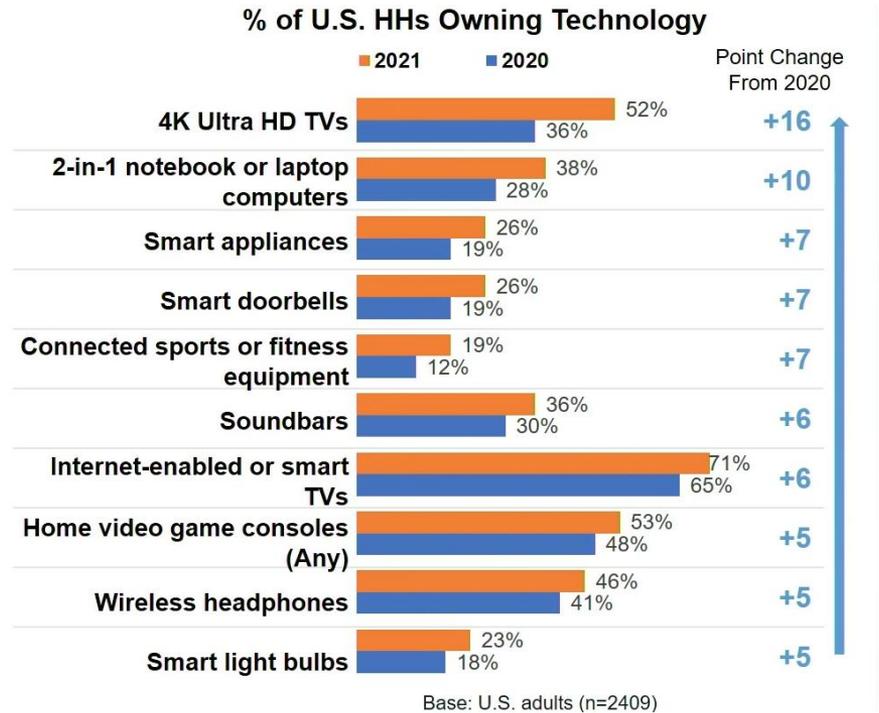


- 내년 역성장 컨센서스
- 여전히 PC 출하량은 3억대 이상
- PC와 모바일의 연계 시도가 PC 수요 3억대 고착화에 기여
- PC의 사용시간은 증가하지 않았으나 PC의 사용 공간이 다양해짐

자료: Trendforce, 삼성증권

가정용 Tech 제품 수의 증가 추세 확인

Consumers level-up their te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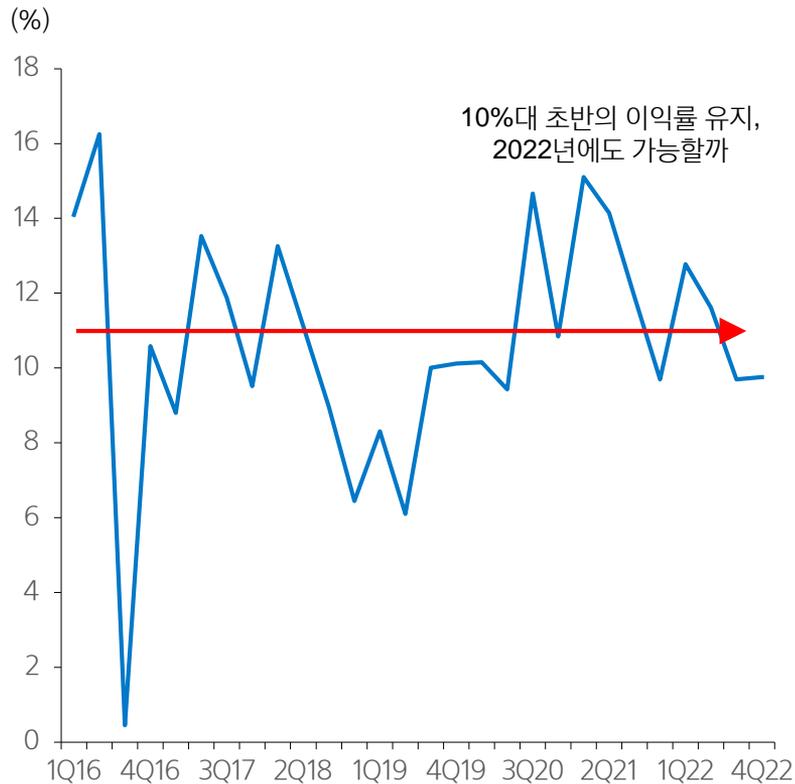
PART
05

세트 업체들의 마진, 어떻게 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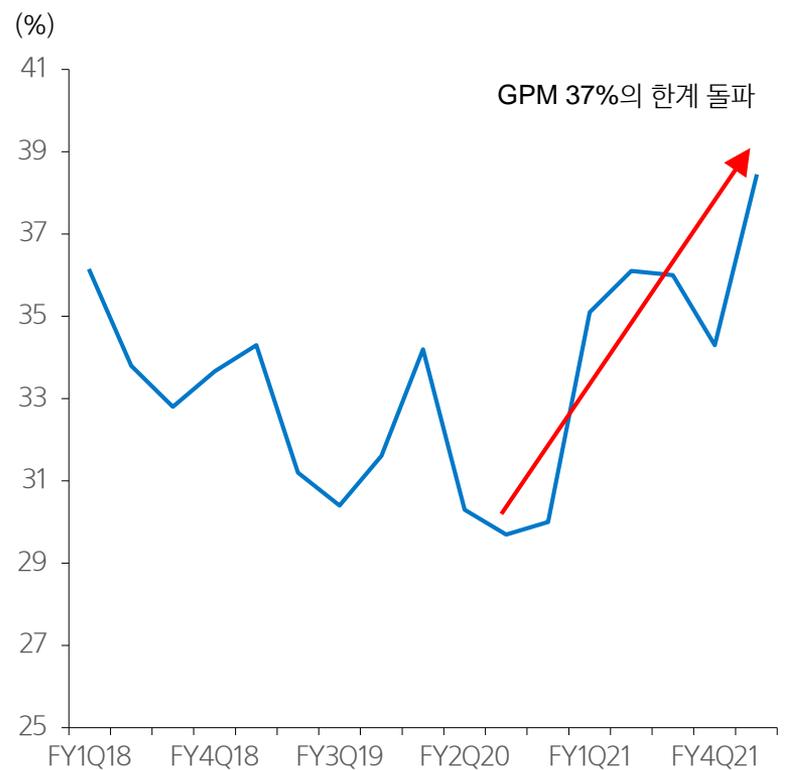
삼성전자와 애플의 이익률 차별화는 1) 판가, 2) 맥북, 3) 악세사리

삼성전자 MX 사업부문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삼성증권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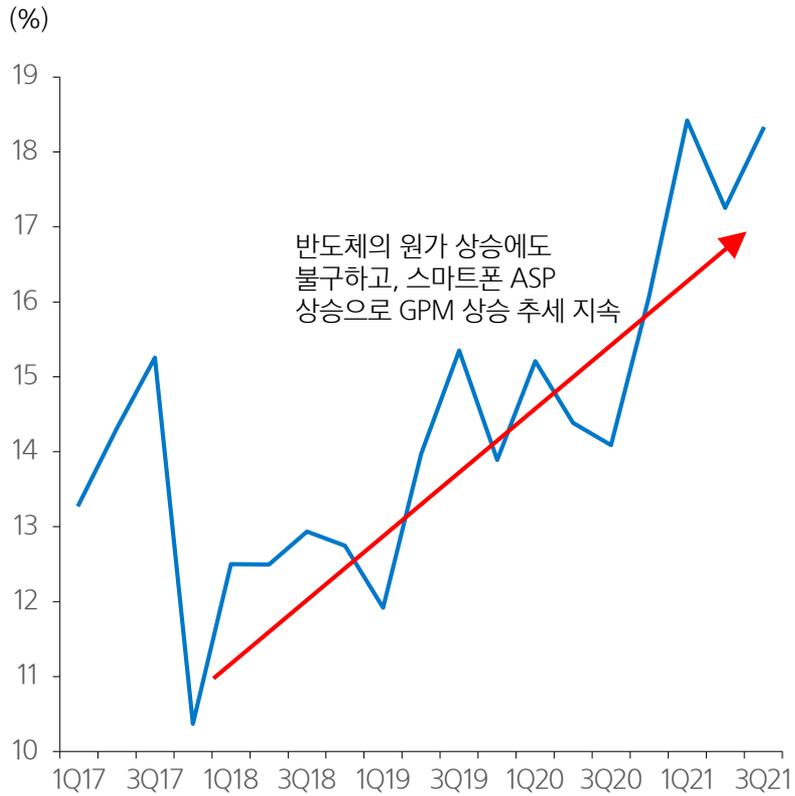
애플 하드웨어 매출총이익률 추이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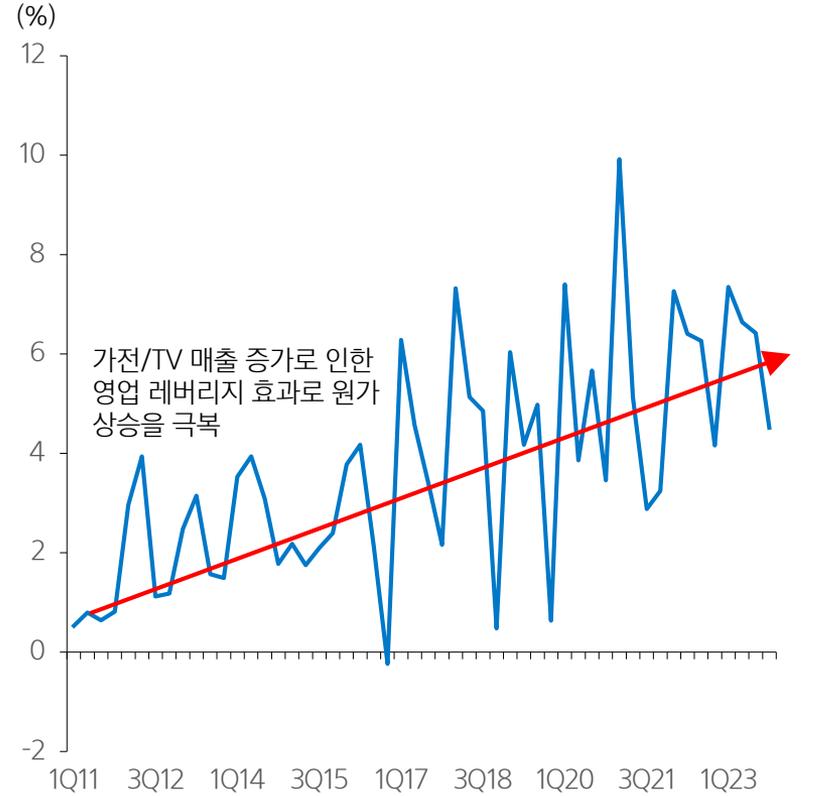
세트 업체들의 우려: ASP 증가가 원가 상승을 상쇄

샤오미 매출총이익률 추이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LG전자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월 10일 현재 삼성전자와 계열사 관계에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2월 10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2월 10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신뢰에 가치로 답하다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지점 대표번호: 1588 2323 / 1544 1544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In Collaboration with RobecoSAM